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의 실험연구 경향 분석*

윤현경¹⁾ · 김희순²⁾ · 윤현정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며, 지식을 생산하는 방법과 과정은 학위논문의 집필을 통해 학습된다(송정숙, 2010). 특히 박사학위 과정은 대학이나 그 밖의 연구 기관에서 교육과 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자, 실천가로서의 학문적인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Mendenhal, 2007). 또한 박사학위 과정은 학생들이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간호학적 지식체를 개발하고 실무에의 적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연구 활동이므로(Robinson & Dracup, 2008; 최명애 등, 2009), 학생들은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통합된 사고체의 실현과 미래 간호연구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박사학위논문에서 연구자는 관심분야의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독창적인 연구 작업을 통해 자신이 앞으로 독자적인 연구 능력을 갖춘 학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송정숙, 2010), 간호학적 지식체 개발의 출발점이라고 볼리우기도 한다(신현숙 등, 2008).

국내 박사학위논문은 첫 간호학 박사학위가 배출된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약 28년 동안 1284편의 논문이 집필되었으며, 최근 10년 동안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도에서 2005년까지 집필된 903편의 박사학위논문 중에 실험연구는 352편으로

전체의 39.0%를 차지하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346편의 박사학위논문에서도 실험연구가 193편으로 전체의 40.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비실험연구의 비율이 낮아지고 실험연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실험연구는 자연철학의 한 줄기로서 16~17세기 서양의 실증주의자들에 의해 각광받기 시작한 연구로, 연구자가 실험에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닌 능동적인 관찰자로 참여하여 관심 있는 현상을 분리하고 조건을 통제된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로서 현상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김조자 등, 2002). 또한 간호현상을 예측, 통제하고 간호중재방법의 개발을 위한 유용한 연구방법이다(이은옥 등, 2009). 이와 같이 실험중재로부터 나온 경험적 지식체는 임상 실무에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식체로 간호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명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실험연구방법은 이론적 기틀에 기초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중재 내용과 효과평가를 위한 종속변수의 특성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이며, 간호사가 대상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임상적 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연구로부터 도출된 최선의 유용한 외적 임상 근거를 간호사 개인의 임상 숙련성과 통합하여 제공하는 근거기반실무에 기초를 제공한다(오의금, 2005). 그러나 실험연구 결과를 간호실무의 중재로 적용하고자 할 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기반 간호실무 적용 수준의 중재 연

주요어 : 간호, 박사학위, 논문분석, 실험연구

* 이 논문은 2010년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학생 연구지원비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1) 영동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 2)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3)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교신저자 E-mail: hun0630@yuhs.ac)

투고일: 2011년 7월 19일 심사완료일: 2011년 8월 24일 게재확정일: 2011년 9월 3일

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므로, 실험연구는 양적 증가 못지않게 방법론,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있어 질적 강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의 증가로 논문들의 분석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분석은 양적연구와 방법론적 분석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심층분석을 통한 간호학 실험연구의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기존 연구들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통찰하여 향후 실험연구 방향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박사학위논문의 질적인 증가와 간호학적 지식체 개발과 학문적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험연구에 대한 분석은 간호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대해 이해를 높여주고, 앞으로의 간호중재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간호연구 논문을 분석함에 있어서 연구마다 분류기준에 대한 정의가 없고, 분석방법이 명료하지 않아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기존문헌의 고찰을 통해 명료하고 통합적인 분석틀을 개발하여 그 기준에 맞게 현시점의 박사학위 실험연구 논문을 심층분석하는 것은 간호학 박사학위 교육과정과 학위논문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임상에서 근거기반 간호실무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실험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중 실험연구 논문을 심층분석하여 학위논문의 탐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실험연구의 내용적 특성을 확인한다.
- 실험연구의 방법론적 특성을 확인한다.
- 실험연구의 중재프로그램 특성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전국 19개 대학의 최근 5년간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을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한 분석틀에 따라 내용을 심층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논문

2006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발표된 전국 대학의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중 실험연구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박사학위논문의 실험연구 목록은 대한간호협회 자료실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원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4u.net>) 이 제공하는 학술연구 정보서비스와 해당 대학도서관을 통해 확보하였다. 전체 139편의 실험연구 논문 중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논문 4편과 모형개발 논문 3편을 제외하고 총 132편 (95.0%)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실험연구 분석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위논문 분석틀은 학위논문 분석연구(김명자 등, 1994; 안경주 등, 2004; 최명애 등, 2009)와 국내 외학회지 게재논문 분석연구(Mantzoukas, 2009; 신현숙 등, 2010)에서 사용되었던 분석기준을 검토하여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 개발 절차는 연구자들이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과 연구자간 토의를 통해 예비분석틀을 개발하였고, 연구자가 각각 10편의 동일한 논문을 정독하여 예비분석틀에 따라 예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연구자 3인이 함께 검토하여 평가자간 분석결과 일치도를 확인하고 최종 분석틀을 완성하였다. 최종 완성된 분석틀의 구성은 실험연구의 내용적 특성, 이론적 특성, 중재프로그램 특성으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분석틀의 하위영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첫째, 실험연구의 내용적 특성에는 연구주제, 효과측정 개념, 이론적 기틀이 포함되었다. 연구주제는 Manzoukas(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6가지 분류방법에 근거하여 실무/임상적, 교육적, 전문적, 영적/윤리/형이상학적, 건강증진, 관리/정책적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실무/임상적 주제는 실무에서 연구나 지식의 이행, 실무 근거기반활용, 실무 형태, 실무에서 의사결정과 임상경향을 나타내는 내용을 포함하며, 교육적 주제에는 간호교육, 교육자, 훈련, 학생 경험, 교과과정 개발을 포함하였다. 전문적 주제에는 전문적 스트레스, 소진, 역할개발, 임상폭력, 전환, 교대근무 및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고, 영적/윤리적/형이상학적 주제에는 영적 문제, 희망, 사랑, 외로움, 비통, 피로, 고통, 부모됨의 내용들을 포함하였다. 건강증진 주제에는 건강지원, 사회적 영향과 상황, 청소년이나 성인, 노인들의 사회적 삶, 성생활, 직장생활 또는 육아의 지원, 예방접종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었고, 관리/정책적 주제에는 정책, 프로토콜, 관리와 조직과 관련된 내용의 연구들이 포함되었다(Mantzoukas, 2009). 효과측정 개념은 실험연구에서 중재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했던 주요 종속변수들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반응형태를 기술한 NANDA Taxonomy II (NANDA, 2009)의 기준에 따라 13개의 domain과 47개의 class로 분류하였다. 이론적 기틀은 이론적 기틀 여부와 사용한 이론의 종류로 확인하였는데, 이론의 분

<Table 1> Framework for research analysi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Content characteristics of research	Issue of studies Outcome measure variables Theoretical framework Hypothesis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Design & internal/external validity of research Distribution of research subjects Data collection method and place Instrument of research Data analysis method Ethical consideration and reward
Intervention characteristics of research	Theoretical framework of intervention Sources of intervention Pilot test of intervention Protocol of intervention Training of interventionist Duration/Time of intervention

류는 간호학 이론 저서(이소우 등, 2009)를 바탕으로 간호학 이론의 배경이론으로 사용되고 있는 10개의 이론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실험연구의 방법론적 특성에는 연구가설, 연구설계, 연구대상자, 표본수 산정 기준, 그룹 할당,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내외적 타당도,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자료수집 방법 및 장소, 자료분석 방법 및 추가분석, 윤리적 고려(연구동의 방법 및 보상)를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방법론적 특성의 하위범주 내용은 선행연구(최명애 등, 2009)와 간호연구 저서(Polit & Beck, 2008; 이은옥 등, 2009)에서 강조되는 실험연구의 기준별 항목에 따른 분류이다.

셋째, 실험연구의 중재프로그램 특성에는 이론적 기틀 여부, 중재프로그램 형태, 예비조사 여부와 중재 프로토콜, 중재자의 훈련, 중재프로그램 기간 및 시간 등을 분석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중재프로그램 특성의 하위범주 내용 중 중재프로그램 형태는 선행연구(신현숙 등, 2010)에 근거하여 교육 프로그램, 웹 기반 프로그램, 간호술, 운동요법, 보완 대체요법, 지지적 간호중재, 재활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8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각 연구자들이 일차적으로 박사학위논문들

나누어 정독한 후 개발된 논문분석틀에 따라 자료를 정리,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과정 중에 간호학 교수 1인과 연구자 2인은 일차분석 결과를 검토하면서 재분석하였고, 연구자간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연구자간 토론을 통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이 과정은 30편씩 논문을 자료수집하는 동안 반복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Version을 이용하여, 개발된 분석틀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연도별 연구주제의 차이검증은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연구의 전반적 특성

● 연도별 특성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국내 박사학위논문은 132편이었다. 연도별로 논문 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06년이 36편(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7년 30편(22.7%), 2008년, 2009년에는 각각 33편(25.0%)이었다<Table 2>.

<Table 2> Number of studies by year and region (N=132)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Year	2006	36	27.3
	2007	30	22.7
	2008	33	25.0
	2009	33	25.0
Region	Seoul	69	52.3
	Jeonnam	14	10.6
	Busan	12	9.1
	GyeongGi	11	8.3
	Daegu	8	6.1
	GyeongBuk	4	3.0
	Daejeon	4	3.0
	Chungnam	4	3.0
	Gwangju	3	2.3
	Jeonbuk	2	1.5
	Gueongnam	1	0.8

● 지역별 특성

지역별은 서울이 69편(52.3%)로 가장 많았고, 전남 14편(10.6%), 부산 12편(9.1%), 경기 11편(8.3%), 대구 8편(6.1%), 경북, 대전, 충남 각각 4편(3.0%), 광주 3편(2.3%), 전북 2편(1.5%), 경남 1편(0.8%) 순이었다<Table 2>.

실험연구의 내용적 특성

● 연구주제

Manzoukas(2009)의 연구에 근거한 실험연구의 연구별 주제를 구분해 본 결과, 실무/임상적 주제가 79편(59.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증진 주제 30편(22.7%), 전문적 주제 8편(6.1%), 영적/윤리적/형이상학적 주제 6편(4.5%), 교육적 주제 5편(3.8%), 관리/정책적 주제 4편(3.0%) 순이었다. 2007년을 전후로 하여 연구주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실무/임상적 주제는 35편(53.0%)에서 44편(66.7%)으로, 전문적 주제는 2편(3.0%)에서 6편(9.1%)으로, 교육적 주제는 1편(1.5%)에서 4편(6.1%)으로 2007년 이전보다 이후에 더 증가되었으며, 건강증진과 영적/윤리적/형이상학적 주제와 관리/정책적 주제는 2007년 이후 더 감소되었으며, 이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한 것으로 나타났다($p=.046$)<Table 3>.

<Table 3> Issue of studies

(N= 132)

Issue	n	%	2005-2007 (n=66)		2008-2009 (n=66)		χ^2	p
			n	%	n	%		
Practice/clinical	79	59.8	35	53.0	44	66.7	11.29	.046
Health promotion	30	22.7	21	31.8	9	13.6		
Professional	8	6.1	2	3.0	6	9.1		
Spiritual/ethics/metaphysics	6	4.5	4	6.1	2	3.0		
Educational	5	3.8	1	1.5	4	6.1		
Managerial/policy	4	3.0	3	4.5	1	1.5		

● 효과측정 개념

인간의 반응형태를 기술한 NANDA의 Taxonomy II 기준(NANDA, 2009)에 근거한 효과측정 개념을 분류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 개념은 626개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활동/휴식 영역이 117개(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처/스트레스 영역 102개(16.4%), 영양 영역 79개(12.7%), 자아지각 영역 61개(9.8%), 안위 영역 59개(9.5%), 안전/보호 영역 56개(9.0%), 역할관계 영역 40개(6.4%), 지각/인지 영역 37개(5.9%), 건강증진 영역 22개(3.5%), 삶의 원칙 영역 21개(3.4%), 배설 영역 18개(2.9%), 성 영역 11개(1.8%), 성장/발달 영역 3개(0.5%)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개념을 인지적 지표와 생리적 지표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인지적 지표는 386개(61.9%), 생리적 지표는 240개(38.5%)로 인지적 지표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인지적 지표에서 주로 사용한 효과측정개념은 대처반응, 자존감, 환경적 안위, 인지, 역할수행의 지표 순으로 나타났고, 생리적 지표에서는 섭취, 활동/운동, 심혈관/호흡기계 반응, 감염, 신경/행동적 스트레스 순으로 효과측정개념을 사용하였다<Table 4>.

● 이론적 기틀 및 연구가설

실험연구에서 이론적 기틀을 제시한 논문은 45편(34.1%)이었는데, 사용된 이론 중 학습이론이 8편(17.8%)으로 가장 많았고, 체계이론, 적응이론, 신체기전이론, 스트레스이론이 각각 6편(13.3%)을 차지하였으며, 자기효능이론, 건강신념모형, 합리적 행위이론이 각각 3편(6.7%)이었고, 상호작용 이론이 2편(4.4%), 발달이론과 건강통제이론이 각각 1편(2.2%)이었다. 전체 실험연구에서 연구가설을 제시한 논문은 106편(80.3%), 제시하지 않은 논문은 26편(19.7%)이었다<Table 5>.

실험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실험연구를 연구설계, 연구대상, 자료수집 방법 및 장소, 연구도구, 자료분석 방법, 연구윤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연구설계

<Table 4> Outcome measure variables according to NANDA Taxonomy II (N=626)

Domain	Class	Cognitive Indicator	Biophysical Indicator	Total(%)
Health promotion	Health awareness	8	0	8
	Health management	14	0	14
				22(3.5)
Nutrition	Ingestion	12	55	67
	Digestion	0	0	0
	Absorption	0	0	0
	Metabolism	0	9	9
	Hydration	0	3	3
				79(12.7)
Elimination/ exchange	Urinary function	2	9	11
	Gastrointestinal function	0	4	4
	Integumentary function	0	3	3
	Respiratory function	0	0	0
				18(2.9)
Activity/Rest	Sleep/rest	1	1	2
	Activity/exercise	19	53	72
	Energy balance	8	0	8
	Cardiovascular-pulmonary responses	0	33	33
	Self-care	2	0	2
				133(18.8)
Perception/ cognition	Attention	1	1	2
	Orientation	0	0	0
	Sensation/perception	2	2	4
	Cognition	24	0	24
	Communication	7	0	7
				37(5.9)
Self-perception	Self-concept	3	0	3
	Self-esteem	54	0	54
	Body image	4	0	4
				61(9.8)
Role relationship	Caregiving roles	6	1	7
	Family relationships	8	0	8
	Role performance	23	2	25
				40(6.4)
Sexuality	Sexual identity	1	0	1
	Sexual function	4	0	4
	Reproduction	2	4	6
				11(1.8)
Coping/Stress tolerance	Post-trauma responses	15	1	16
	Coping responses	69	0	69
	Neurobehavioral stress	5	12	17
				96(16.4)
Life principles	Value	0	0	0
	Beliefs	7	0	7
	Value/belief action congruence	14	0	14
				21(3.4)
Safety/ protection	Infection	0	29	29
	Physical injury	6	7	13
	Violence	3	0	3
	Environmental hazards	2	1	3
	Defensive processes	2	1	3
	Thermoregulation	0	5	5
				56(9.0)
Comfort	Physical comfort	22	3	25
	Environmental comfort	27	0	27
	Social comfort	7	0	7
				59(9.5)
Growth/ development	Growth	1	1	2
	Development	1	0	1
				3(0.5)
Total(%)		386(61.9)	240(38.5)	626(100)

* Multiple finding

<Table 5> Theory and hypothesis of research (N=132)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	
Conceptual framework	Yes	45	34.1	
	No	87	65.9	
Category of theory	Learning theory	8	17.8	
	Systems theory	6	13.3	
	Adaption model	6	13.3	
	Body mechanism theory	6	13.3	
	Stress theory	6	13.3	
	Self efficacy theory	3	6.7	
	Health belief model	3	6.7	
	Theories of reasoned action	3	6.7	
	Interaction theory	2	4.4	
	Development theory	1	2.2	
	Health locus of control theory	1	2.2	
	Hypothesis	Yes	106	80.3
		No	26	19.7

논문의 연구설계를 분석한 결과, 설계유형은 유사실험설계가 120편(9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순수실험설계 9편(6.9%), 원시실험설계 1편(0.8%)이었고, 기타는 2편(1.5%)으로 질적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한 혼합연구 방법이었다. 연구의 내외적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내적 타당도를 고려한 논문은 55편(41.7%), 고려하지 않은 논문이 77편(58.3%)이었고, 내적 타당도를 고려한 논문 중 실험의 확산을 고려한 논문이 20편(27.8%)으로 가장 많았고, 제 3변수의 개입은 19편(26.4%), 측정도구상의 문제 12편(16.7%), 후광효과 9편(12.5%), 대상자 선택편중을 고려한 논문이 5편(6.9%)이었다. 그 외 성숙, 측정시기와 효과발생시기, 시험효과를 고려한 논문이 각각 2편(2.8%)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한 논문은 1편(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적 타당도를 고려한 논문은 18편(13.6%), 고려하지 않은 논문이 114편(86.4%)이었으며, 그 중 모집단의 타당도를 고려한 논문이 16편(88.9%)로 가장 많았고, 환경적 타당도를 고려한 논문이 2편(11.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6>.

<Table 6> Design and internal/external validity of research

(N=132)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Contents	n	%		
Design	Quasi-experimental study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91	68.9		
		Interrupted time series	11	8.3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7	5.3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only	4	3.0		
		Repeated measures design	4	3.0		
		Crossover design	2	1.5		
		Simulated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1	0.8		
		subtotal	120	90.8		
	True-experimental study	Randomized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6	4.6		
		Randomized only control group	2	1.5		
		Randomized block	1	0.8		
		subtotal	9	6.9		
	Pre-experimental study	One-group pretest-posttest	1	0.8		
	others	2	1.5			
Internal validity of research	Yes	Diffusion or imitation of treatment*	20	27.8		
		History*	19	26.4		
		Instrumentation*	12	16.7		
		Halo effect*	9	12.5		
		Selection	5	6.9		
		Maturation*	2	2.8		
		Measurement & effect occurrence period	2	2.8		
		Testing	2	2.8		
		Mortality	1	1.3		
			No	77	58.3	
		External validity of research	Yes	Population validity	18	13.6
				Ecological validity	16	88.9
				2	11.1	
No	114		86.4			

* Multiple finding

● 연구대상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는 건강한 일반인 62편(46.9%), 환자 48편(36.8%), 건강관리제공자 14편(10.6%), 환자와 간호사 혼합 5편(3.8%), 기타로 동물대상 3편(2.3%) 순이었다. 표본 크기의 산출근거를 제시한 논문은 76편(58.4%)이었으며, 그 중 Cohen 공식을 이용한 논문 53편(40.2%), G Power 프로그램을 사용한 논문 17편(12.9%), 선행연구를 참조한 논문 4편(3.0%), 기타 2편(2.3%)이었다. 기타에는 Machin 등(1997)의 table에 근거한 산출이 1편, Minitab Release에 근거한 산출이 1편으로 나타났다. 표본추출 방법에서는 확률표출이 7편(5.4%), 비확률표출이 125편(94.6%)으로 나타났으며, 비확률표출에서는 임의표출이 120편(90.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실험군과 대조군 할당방법을 기술한

논문은 52편(39.4%)이었고, 할당방법을 기술하지 않은 논문은 79편(59.8%)이었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이 이루어진 연구는 127편(95.5%)으로, 대부분의 논문에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 자료수집 방법 및 장소

자료수집 방법에는 중복응답이 가능하였는데, 질문지법 385편(60.0%), 생리적 측정법 226편(35.2%), 관찰법 20편(3.1%), 인터뷰 2편(0.3%)이었으며, 자료수집 장소는 병원이 37편(28.0%)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 시설이 31편(23.5%), 학교가 20편(15.1%), 병원 외래와 보건소가 각각 16편(12.1%), 가정이 8편(6.1%), 실험실이 3편(2.3%) 순이었다<Table 8>.

<Table 7> Distribution of research subjects (N=132)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Contents	n	%
Research participants	Well participants	Adults	29	22.0
		Children, adolescents	16	12.1
		Elderly	13	9.8
		Overall aged subjects	4	3.0
		subtotal	62	46.9
	Ill participants	Adults	26	19.7
		Overall aged subjects	13	9.8
		Elderly	8	6.1
		Children, adolescents	1	0.8
		subtotal	48	36.8
	Health care provider	Nurse	11	8.3
		Nursing students	3	2.3
		subtotal	14	10.6
	Mixed (patient/client and nurses)		5	3.8
	Others		3	2.3
Criteria for sample size		Cohen method	53	40.2
		G Power	17	12.9
		Precedent study	4	3.0
		Other	2	2.3
		Not reported	56	41.4
Type of sampling methods	Probability (Random) sampling methods	simple random sampling	3	2.3
		Stratified random sampling	2	1.5
		cluster sampling	1	0.8
		systematic sampling	1	0.8
		subtotal	7	5.4
	Nonprobability (nonrandom) sampling methods	Convenience sampling	120	90.9
		purposive sampling	4	3.0
		Quota sampling	1	0.8
		subtotal	125	94.6
Group or sample allocation		Yes	52	39.4
		No	79	59.8
		Non applicable cases exclude	1	0.8
Homogeneity test of participants		Yes	127	95.5
		No	4	3.0
		Non applicable cases exclude	1	1.5

<Table 8> Data collection method and place

(N=132)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Contents	n	%
Data collection method*	Questionnaire	In-Person distribution	385	60.0
		Through the mail	7	1.1
		Through the internet	2	0.3
	Biophysiological measure	Observation	226	35.2
		Interview	20	3.1
		Interview	2	0.3
Data collection place		Hospital - ward	37	28.0
		Community facility	31	23.5
		School	20	15.1
		Hospital - outpatient clinic	16	12.1
		Public health center	16	12.1
		Home	8	6.1
		Laboratory	3	2.3
		Not reported	1	0.8

* Multiple finding

● 연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실험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총 378개로, 전체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해 본 결과 신뢰도를 표기한 도구가 358개(94.7%)였고, 20개(5.3%)의 도구에서는 신뢰도를 표기하지 않았다. 또한 사용된 도구의 타당도를 분석해본 결과, 타당도를 표기한 도구는 30개(7.9%)였으며, 타당도를 표기하지 않은 도구는 348개(92.1%)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9> Validity/Reliability of instrument (N=378)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
Validity of instrument	reported	358	94.7
	not reported	20	5.3
Reliability of instrument	reported	30	7.9
	not reported	348	92.1

●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 방법에서는 중복응답이 가능하였으며, 그 결과 모수통계가 168편(74.7%), 비모수 통계 56편(24.9%), 기타에는 다차원척도법 1편(0.4%)이 나타났다. 모수통계에서는 t-test가 66편(29.3%)으로 가장 많았고, Repeated measure ANOVA가 42편(18.8%), ANCOVA가 37편(16.4%), ANOVA가 11편(4.9%), Correlation과 Multiple regression이 각각 4편(1.8%), Path analysis가 2편(0.9%), Logistic regression과 Discriminant analysis가 각각 1편(0.4%) 순이었다. 또한 비모수통계에서는 Mann-Whitney test 22편(9.8%), Chi-square 14편(6.2%), Wilcoxon's test 13편(5.8%), Fisher's exact test 4편(1.8%), Kruskal Wallis test 2편(0.9), McNemar test 1편(0.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0>.

<Table 10> Data analysis method

(N=132)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Contents	n	%
Data analysis method	Parametric statistics	T-test*	66	29.3
		Repeated measure ANOVA*	42	18.8
		ANCOVA*	37	16.4
		ANOVA*	11	4.9
		Correlation*	4	1.8
		Multiple regression*	4	1.8
		Path analysis	2	0.9
		Logistic regression	1	0.4
	Discriminant analysis	1	0.4	
	subtotal		167	74.3
	Non parametric statistics	Mann-Whitney*	22	9.8
		Chi square*	14	6.2
		Wilcoxon's*	13	5.8
		Fisher's exact*	4	1.8
		Kruskal Wallis*	2	0.9
		McNemar	1	0.4
	subtotal		222	98.8
Other		1	0.4	

* Multiple finding

<Table 11> Ethical consideration and reward

(N=132)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Contents	n	%
Ethical consideration		Written consent	50	37.9
		Verbal consent	37	28.0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27	20.5
		Not reported	18	13.6
Reward	Experimental group	Yes	28	21.2
		No	104	78.8
	Control group	Yes	38	28.8
		No	94	71.3

● 연구윤리

실험연구에서 연구윤리의 고려 정도를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수행에 대해 서면동의를 받은 논문이 50편(37.9%)으로 가장 많았고, 구두동의가 37편(28.0%), 연구윤리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은 논문은 27편(20.5%)이었으며, 반면에 연구동의 절차를 하지 않은 논문은 18편(13.6%)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보상여부를 살펴보면 중재 프로그램 외 실험군에게 보상을 제공한 논문은 28편(21.2%), 제공하지 않은 논문은 104편(78.8%)였고, 대조군에서는 중재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보상을 한 논문이 38편(28.8%), 보상을 제공하지 않은 논문은 94편(71.3%)으로 나타났다 <Table 11>.

실험논문의 중재프로그램 특성

논문에서 사용된 중재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중재의 이론적 기틀을 제시한 논문은 33편(25.0%)이었고, 제시하지 않은 논문은 99편(75.0%)로 나타났다. 중재프로그램의 예비조사를 시행한 논문은 82편(62.1%), 예비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논문은 50편(37.9%)이었으며, 중재 프로토콜은 거의 모든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었다(121편, 91.7%). 또한 중재를 위한 연구자 또는 연구 보조원의 준비도를 분석해 본 결과 중재에 대한 훈련은 84편(63.6%)이 받았고, 48편(36.4%)은 훈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 프로그램이 32편(24.2%)으로 가장 많았고,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논문이 27편(20.5%)이었으며, 보완대체요법이 25편(18.9%)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Table 12>.

중재프로그램의 형태는 단독중재형이 110편(83.3%)이었고, 복합중재형이 22편(16.7%)이었으며, 프로그램 형태에 따른 중재내용을 살펴보면 단독중재형에서는 운동 프로그램이 2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합중재형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7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Table 13>.

중재의 총 기간은 평균 7.96주, 중재의 총 시간은 평균 69.66분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중재의 내용에 따른 중재기간과 중재시간을 살펴보면, 중재기간은 간호술 중재가 11.88주로

<Table 12> Intervention characteristics of research

(N=132)

Characteristics	Contents	n	%
Theoretical framework of intervention	Yes	33	25.0
	No	99	75.0
Pilot test of intervention	Yes	82	62.1
	No	50	37.9
Protocol of intervention	Yes	121	91.7
	No	11	8.3
Training of interventionist	Yes	84	63.6
	No	48	36.4
Source of intervention	Education	32	24.2
	Web based program	5	3.8
	Nursing therapeutics	13	9.8
	Exercise	27	20.5
	Alternative therapeutics	25	18.9
	Supportive care	15	11.4
	Rehabilitation	10	7.6
	Counseling	3	2.3
	Others	2	1.5

<Table 13> Type of intervention according to intervention source

(N=132)

Characteristics	Single intervention		Bundle intervention	
	n	%	n	%
Total	110	83.3	22	16.7
Education	21	19.1	11	50.0
Web based program	4	3.6	1	4.5
Nursing therapeutics	11	10.0	2	9.1
Exercise	26	23.6	1	4.5
Alternative therapeutics	21	19.1	4	18.2
Supportive care	13	11.8	2	9.1
Rehabilitation	10	9.1	0	0.0
Counseling	2	1.8	1	4.5
Others	2	1.8	0	0.0

가장 길었으며, 회기당 중재시간은 상담 중재가 170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Table 14>.

〈Table 14〉 Duration and time of intervention according to intervention source

(N=132)

Characteristics	Duration of Intervention(Week)*			Time of Intervention(Minute)*		
	Mean	SD	Range	Mean	SD	Range
Education	10.57	8.19	1-34	71.90	45.58	20-240
Web based program	5.80	2.28	3-8	28.33	2.89	25-30
Nursing therapeutics	4.80	1.92	3-8	52.67	28.62	4-90
Exercise	9.41	2.58	4-12	56.48	19.60	15-90
Alternative therapeutics	4.42	2.39	1-8	68.05	111.97	10-540
Supportive care	6.31	3.00	2-12	7.50	32.25	30-135
Rehabilitation	9.44	6.41	4-20	80.63	28.60	40-120
Counseling	4.00	0.00	4	215.00	232.54	45-480
Others	1.00	0.00	1	-	-	-

*Excluded missing data

본 의

본 연구는 2006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발표된 박사학위 과정이 있는 19개 대학의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중 실험연구 논문 132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도별 추이는 2006년이 36편(27.3%)으로 가장 많았고,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33편(25.0%)으로 나타나 매년 약 30편 정도의 실험논문이 발표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1994년도에 발표한 김명자 등의 학위논문 연구방법분석에서 나타난 실험연구 비율인 34.1%보다 낮은 수치로, 최근 근거중심 간호실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실험연구, 특히 RCT 연구들이 초점을 받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박사학위논문에서 수행되는 실험연구의 수는 제한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박사학위논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실험조작을 하여 연구하는데 아직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에서 이루어진 실험연구의 내용적, 방법론적, 중재프로그램의 특성이 어떠한지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박사학위논문에서 실험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점과 향후 간호학 실험연구의 탐구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실험연구의 내용적 특성

실험연구의 내용적 특성은 박사학위논문의 연구주제, 효과 측정 개념 및 이론적 기틀과 연구가설에 따라 분석하였다.

논문에서 사용된 연구주제는 실무/임상과 관련된 주제가 79편(59.8%)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2007년 이전에는 35편(53.0%)에서 이후에는 44편(66.7%)으로 높게 나타나 박사학위논문의 주제로 임상 간호실무에 대한 주제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국내에서 임상의 근거기반실무가 강조되고 있고, 이를 위한 실험연구의 필요성이 박사학위논문의 연구경향에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Manzoukas(2009)의 간호학술지 분

석연구에서도 교육이나 건강증진과 관련된 주제보다 실무/임상과 관련된 주제가 45.0%로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임상실무자들이 중재를 강화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무관련 연구들이 필요함으로 실험연구에 기초를 둔 근거기반 실무의 발전을 위해서는 임상중재 관련 연구들이 양적으로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2007년 전후로 연구주제를 비교해본 결과 전문적 주제가 2편(3.0%)에서 6편(9.1%)으로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되고 임상에서 이들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간호사 역할이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와 같은 연구의 증가는 간호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연구에서 사용된 효과측정 개념은 인간의 반응형태를 기술한 NANDA의 Taxonomy II 기준(NANDA, 2009)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분류결과 활동/휴식 영역이 117개(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대처/스트레스 영역이 102개(16.4%), 영양 영역이 79개(12.7%)로 나타났다. 김명자 등(1994)의 연구에서도 NANDA의 Taxonomy I에 따라 종속변수를 분석하였는데, 불안, 동통, 우울 등의 느낌을 다룬 논문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회복, 대사, 심폐기능, 감염, 활력증후 등의 교환을 다룬 변수들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분석틀인 Taxonomy가 변화됨에 따라 두 연구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 변수보다 수면/휴식, 활동/운동, 심혈관/호흡기계 반응과 같은 신체·생리적 변수들이 증가되고 있었고, 특히 이 영역에서 인지적 지표보다 혈압, 체지방측정, 혈당과 같은 생리적 지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중재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여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생리적 지표가 연구결과를 정확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해 타당한 생리적 지표를 올바르게

게 규명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진단과 치료술이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지식과 기술은 임상간호에서도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므로 high technology를 이용한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생리적 지표를 사용하는 연구는 간호학적 측면에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안경주 등, 2001).

박사학위논문들의 실험연구에서 사용된 이론적 기틀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 연구의 이론적 기틀을 제시한 논문은 45편(34.1%)으로, 최명애 등(2009) 일개대학 박사학위논문 분석연구에서 나타난 40.0%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중재프로그램의 이론적 기틀을 제시한 논문도 39편(25.0%)에 불과하여, 이론을 적용한 박사학위논문은 부족한 상태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전체 연구에서 적용된 이론의 대부분은 타학문에서 가져온 이론이었고, 순수 간호이론으로는 로이의 적용이론뿐이었다. 박사학위논문은 새로운 간호 지식체를 개발하거나 혹은 기존의 지식체를 확장하기 위해서 과학철학적 관점에서 출발한 일련의 사고과정을 거쳐 간호학적 질문을 명료화하고 관련 이론을 적용한 간호학적 지식체라고 할 수 있다(김의숙, 2004). 따라서 간호학적 지식체 개발의 출발인 박사학위논문에서 과학적인 간호이론의 적용과 확장은 간호학을 과학적 학문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도울 것이다. 특히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중재프로그램 개발은 간호실무의 과학적 가치를 높여주어 실무와 연구가 연결된 간호만의 고유한 지식체를 개발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할 것이다. 또한 실험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설을 제시하지 않은 논문이 26편(19.7%)이나 있었다. 연구가설은 연구방향을 제시하며 이론의 검증을 돕고, 비판적 사고를 증가시켜 연구자료의 이해와 해석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Polit & Beck, 2008), 연구경험이 적은 박사과정생들은 연구가설을 통해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과 해석을 이해하고 결과를 통합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연구가설의 설정은 필수적인 부분일 것이다.

실험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실험연구의 방법론적 특성은 연구설계, 연구대상, 자료수집 방법 및 장소, 연구도구, 자료분석 방법, 연구윤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설계에서는 유사실험연구가 120편(90.8%)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순수실험연구는 9편(6.9%)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신현숙 등(2010)이 최근 2년간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와 최명애 등(2009)의 일 간호대학의 박사학위논문의 경향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임상에서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RCT 연구수행이 증가되어

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근거중심 간호실무가 정착되어야 한다(Mantzoukas, 2009). 또한 유사실험연구는 대부분 무작위화의 어려움으로 순수실험연구가 되지 못한 것이므로(신현숙 등, 2010), 연구설계시 대상자의 무작위 할당 방법을 최대한 시도할 필요가 있다. 내외적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내적 타당도는 실험의 확산, 제 3변수의 개입, 측정도구상의 문제, 후광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외적 타당도는 모집단과 환경적 통제를 통해 실험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제시하였는데, 내외적 타당도는 실험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Walker, 2005),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위한 노력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하지만 내외적 타당도를 기술하지 않은 논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험연구의 수준 높은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구설계에서부터 통제가 필요한 변수들이나 조건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오차변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표본수 산정 기준을 분석한 결과, 기준을 제시한 논문이 76편(58.4%)로, Cohen의 공식이 53편(40.2%), G power program을 이용한 논문이 17편(12.9%)을 차지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와 예비조사를 통한 표본수 산정방법에 비해 질적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표본 표집 방법에서는 비확률표출방법이 125편(94.6%)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대상자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할당방법을 기술한 논문은 52편(39.4%), 기술하지 않은 논문은 79편(59.8%)으로 나타났다. 무작위 할당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윤리성과 과학성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연구결과에 내적 타당도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며, 연구자료의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층화나 블록 무작위 배정 등과 같은 할당방법을 적용한 실험설계 방법이 요구된다(박병주, 박경호, 김옥주, 2006). 또한 연구의 대표성과 일반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나 다양한 확률표출방법의 도입을 고려한 대상자 표출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분석에서 연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도구의 신뢰도는 358개(94.7%)가 보고되어 있는 반면 타당도는 348개(92.1%)에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간호학 학위논문 분석연구(고옥자 등, 1994; 김의숙 등, 2004; 안경주 등 2004)와 학회지 게재 논문 분석연구(박연환 등, 2008)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Walker, 2005), 특히 타당도는 관심이 있는 개념의 속성을 측정도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지를 검증하며, 타당도가 높은 도구는 신뢰도도 높은 도구라고 할 수 있으므로(유일영, 2005)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의 선택은 연구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실험논문의 중재프로그램 특성

논문에서 사용된 실험중재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단일 중재프로그램만 제공한 논문은 110편(83.3%)이었고, 복합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한 논문은 22편(16.7%)이었으며, 복합 중재프로그램에서는 주로 교육 중재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중재프로그램은 첫째, 이론의 개념틀에서 다양한 중재들을 제시하고 있거나 둘째,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루어지는 중재방법일 경우, 셋째, 중재에 사용되는 요소들을 나누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넷째, 단일 중재들이 비효과적이거나 안전하지 못하다고 선행연구에서 주장할 때, 다섯째, 많은 문제들로부터 중재방법들을 찾아야 할 경우 유용하다고 하였으므로(Conn, Rantz, Wipke Tevis, & Maas, 2001), 중재의 배경이 되는 이론이나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의 중재방법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중재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성교육, 어머니역할교육, 동기강화나 임파워먼트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중재프로그램이 32편(24.2%)으로 가장 많았고, 비판관리 운동, 산후운동, 걷기 운동과 같은 일반적인 운동 중재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아쿠아로빅, 우리춤 체조, 태극권, 타이치 운동과 같은 다양한 운동 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한 논문이 27편(20.5%)으로 나타났으며, 경혈, 발반사, 쑥좌훈, 아로마 요법과 같은 보완대체요법이 25편(18.9%)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1994년에 시도된 석박사학위논문 분석연구(김명자 등, 1994)나 최근 진행된 신현숙 등(2010)의 연구결과와 같이 간호 중재프로그램으로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중재방법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춤 체조, 태극권, 타이치 운동과 같이 다양한 운동 중재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보완대체요법을 적용한 중재프로그램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간호영역이 확장되고 간호중재가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호학적 의의에 대한 고려 없이 타학문의 중재내용을 무분별하게 중재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은 간호학문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과학적 지식체 생산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시도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중 실험연구 논문을 심층분석하여 학위논문의 탐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전국 대학의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 중 실험연구 논문을 132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Version을 이용하여, 개발된 분석틀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으며, 연도별 연구주제의 차이검증은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실험연구의 내용적 특성으로는 연구주제에서 실무/임상적 주제가 가장 많았으며 증가추세였고, 효과측정 개념 분석에서는 심리정서적 변수보다 신체생리적 변수들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에서 적용된 이론의 대부분은 타학문에서 가져온 이론이었고, 순수 간호이론은 로이의 적용이론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의 방법론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유사실험연구가 많았고 순수실험연구는 매우 적었으며, 전체 논문의 절반 이상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할당방법이 기술되지 않고 있었고, 많은 논문들이 연구의 내외적 타당도에 대한 고려점을 기술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중재프로그램의 분석에서 단일 중재프로그램이 복합 중재프로그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재프로그램의 내용에서는 교육 중재프로그램과 운동 중재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간호연구의 분석이 요구되며, 특히 방법론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사용된 이론, 개념, 변수 등의 내용적 분석을 통해 간호학 연구의 주요 주제와 추후 연구 동향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근거중심 간호실무의 발전을 위하여 간호학 고유의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재 프로그램의 경험적 검증과 적용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간호연구자로서의 출발점인 박사학위논문의 충분성(good enough) 확보를 위해 실제적 표준에 근거한 학위논문의 계속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고옥자, 김상혜, 김희걸, 이금재, 이영숙 (1994). 학위논문의 주요어 분석 - 간호학 및 간호학 관련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 1960-1991.8 -. *대한간호학회지*, 24(1), 58-69.
- 김명자, 이명선, 이미형, 이화인 (1994). 우리나라 간호계 석박사학위 논문분석-실험연구를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4(1), 96-108.
- 김의숙, 김광숙, 김대란, 김은정, 성경미, 신현숙, 신혜경, 이영자, 정석희 (2004). 박사학위논문에 나타난 간호학 탐구경향. *대한간호학회지*, 34(2), 315-323.
- 김조자, 김수지, 박지원, 유지수, 정영혜, 신경림 (2002). *간호연구* 서울: 수문사.
- 박병주, 박경호, 김옥주 (2006). *임상시험을 위한 기본교재* 서

- 울: 식약청.
- 박연환, 이영휘, 김옥수, 조명옥 (2008). 최근 3년간 성인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의 내용과 경향 분석 (2004-2006년). *성인간호학회지*, 20(1), 176-186.
- 송정숙 (2010). 한국 문헌정보학의 연구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333-353.
- 신현숙, 성경미, 정석희, 김대란 (2008).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의 최근 탐구 경향: 2000년 이후 논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8(1), 74-82.
- 신현숙, 현명선, 구미옥, 조명옥, 김숙영, 정재심, 정금희, 서문경애, 손연정 (2010). 최근 2년간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게재논문 분석 - 연구 동향, 실험중재, 연구의 근거 등급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40(1), 139-149.
- 안경주, 함은미, 박광희, 강지연, 박성희, 이희주, 류세양, 이명선, 김금순, 최명애, 이소우, 이은옥 (2004). 서울대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분석을 통한 간호학 연구의 경향. *간호학지평*, 1(1), 85-102.
- 오의금 (2005). 근거기반 간호실무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간호학 탐구*, 13(2), 23-37.
- 유일영 (2005). 측정도구의 선택과 개발. *간호학 탐구*, 14(1), 33-44.
- 이소우, 김주현, 이병숙, 이은희, 정면숙 (2009). *간호이론의 이해*. 서울: 수문사.
- 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이인숙, 김종업, 배정미, 이선미 (2009). *간호연구와 통계분석*. 서울: 수문사.
- 최명애, 홍경자, 한경자, 박명숙, 박성애, 하양숙, 김금순, 윤순녕, 송미순, 이명선, 이인숙, 박현애, 최스미, 정재원, 박연환, 장희경 (2009). 일 간호대학 박사학위논문의 분석을 통한 간호학 연구의 경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5(1), 32-43.
- Conn, V. S., Rantz, M. J., Wipke-Tevis, D. D., & Maas, M. L. (2001). Designing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4(5), 433-442.
- Machin, D., Campbell, M. J., Fayers, P. M., & Pinol, A. P. Y. (1997). *Sample size tables for clinical studies*(2nd. ed.). Oxford: Wiley-Blackwell.
- Mantzoukas, S. (2009). The research evidence published in high impact nursing journals between 2000 and 2006: A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6(4), 479-489.
- Mendenhall, A. N. (2007). Switching hats: Transitioning from the role of clinician to the role of researcher in social work doctoral education. *Journal of Teaching in Social Work*, 27(3-4), 273-290.
- North American Nursing Diagnosis Association (2009). *Nursing Diagnoses: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 2009-2011*. Oxford: Wiley-Blackwell.
- Robinson, S., & Dracup, K. (2008). Innovative options for the doctoral dissertation in nursing. *Nursing Outlook*, 56(4), 174-178.
- Polit, D. F., & Beck, C. T. (2008). *Nursing research: Generating and assessing evidence for nursing practice* (8th ed.). Philadelphia, PA: Wolters Kluwer,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Walker, W. (2005).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research designs involving quantitative measures. *Journal of Research in Nursing*, 10(5), 571-582.

Analysis of Experimental Research Trends on Doctoral Dissertations in Nursing*

Yoon, Heun-Keung¹⁾ · Kim, Hee-Soon²⁾ · Yun, Hyun-Jung³⁾

1)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Youngdong University

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3)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Purpo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cent trends of experimental research by analyzing doctoral dissertations in all colleges of nursing in Korea. **Methods:** The areas of research, the content, methodological and intervention characteristics used in this study were explored in experimental research on doctoral dissertations (n=132) published from 2006 to 2010. **Results:** In the issues of research, practice/clinical issues were most frequently used. As to outcome measurement, physiological variables increased more than psychological/emotional variables. Most theory applied in the research was taken from other disciplines, and nursing theory was only Roy's adaptation theory. A large majority of the research was quasi-experimental designs and the number of true-experimental designs was very low. In more than half of the dissertations, internal validity was not described, and the described external validity rate was very low. There were more single intervention programs than bundle ones and education/exercise programs were most frequently used as the source of intervention. **Conclusion:** Doctoral dissertations need to increase and encourage more high quality experimental research to expand nursing knowledge and to develop evidence based nursing practice.

Key words : Nursing, Academic dissertations, Research, Analysis, Experimental design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Yonsei University in 2010.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un, Hyun-Jung

Department of Family Nursing Science,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250 Seongsan-ro,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82-2-2228-3277 Fax: 82-2-392-5440 E-mail: hun0630@yuhs.ac